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현영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Women

Hyun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기 이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 8개 도시의 중년여성 256명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직업과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화불안은 지각된 건강상태($r=-.300, p<.001$), 회복탄력성($r=-.537, p<.001$), 결혼만족도($r=-.316, p<.001$), 자존감($r=-.424,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beta=-.47, p<.001$)과 직업($\beta=-.19, p=.003$), 자존감($\beta=-.19, p=.014$)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36.9%였다($F=14.34, p<.001$).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 이후에 직업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및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assist in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fte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among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were 256 middle-aged women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8 to April 11, 201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This study found that the aging anxiety of the subject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job and marriage satisfaction. Aging anxie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erceived health ($r=-.300, p<.001$), resilience ($r=-.537, p<.001$),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r=-.316, p<.001$), and self-esteem ($r=-.424, p<.000$). The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were as follows: resilience ($\beta=-.47, p<.001$), occupation ($\beta=-.19, p=.003$), and self-esteem ($\beta=-.19, p=.014$) with 36.9% explanatory power ($F=14.34, p<.001$). To reduce the aging anxiety of middle-aged people, programs will be needed to improve participation in post-middle-aged jobs or social activities and resilience, self-esteem, thereby providing education and mediation that can allow middle-aged women to accept aging positively.

Keywords : Middle aged women, Aging anxiety, Perceived health,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Hyun Young Kim(Kyungwoon Univ.)

email: actoduto@hanmail.net

Received April 23,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May 14,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약 40세부터 시작되는 중년기는 초기 성인기를 지나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노화라는 신체적인 기능의 감소와 더불어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삶에 대한 정신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이 생기는 황금기인 반면 신체적인 노화와 기능 저하, 만성질환 증가와 장애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힘들고 다가올 노년기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시기이다[1].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은퇴연구소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여성의 경우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들에게는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손자를 양육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노부모 부양을 통해 노인을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화를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노화에 대해 불안해하고 피하고자 노력한다[3]. 또한 노화가 시작되면서 난소기능의 감퇴로 인한 폐경 현상이 일어나며 그에 따라 만성질환 및 성인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까운 지인 및 배우자의 질병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공허감, 위기감 및 부정적 자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4]. 따라서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중년여성들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노화불안(Aging anxiety)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노화불안은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불안과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5]으로 중년기의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해 부정적 사고, 태도 및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고, 나아가 중년기 이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4]. 따라서 중년기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년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행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폐경을 경험하는 중년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화불안 선행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후준비 등이 노화불안을 낮추고 성공적인 노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3, 6-9]. 그 밖에도 중년

여성들에게 노화불안을 야기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선행요인이 존재하므로 성공적인 노화준비를 위해서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확장된 탐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년여성들은 폐경과 더불어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와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과 상실의 두려움으로 노화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고[10],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면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3].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스트레스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의 과정으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역량을 의미한다[11]. 중년기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노화불안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노화를 발달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지각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12].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중·노년기가 길어지고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으로 부부만 오롯이 남아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지므로 중년기 이후의 삶은 부부관계가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노년기 적응수준이 높아지고,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노화불안은 감소한다[3].

자존감(Self-esteem)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낮은 자존감은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중년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역할의 상실과 폐경으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손상이 우울을 동반한 불안을 일으키므로 중년기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3, 28]. 하지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중년기부터 준비해야 할 요인임에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행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중년여성들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확장된 탐색의 필요성을 가지고 중년여성들의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중년여성들이 긍정적으로 노화과정을 수용하고 중년기 이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기 여성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 노화불안의 정도를 살펴본다.
- 2)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중년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과 노화불안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이나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과 노화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여성을 편의 모집하였다. 글을 읽고 이해가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은 .95, 효과크기는 .15(medium), 독립변수 20개로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222명이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해 총 280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한 24부를 제외한 256부를 최종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개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의미한다[3].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Speake, Cowart와 Pellet(1989)가 개발하고[14], 김승희(2010)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5].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우 좋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함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였고, 김승희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였으며[15], 본 연구의 Cronbach's α =.76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그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12].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Reivich와 Shatte(2002)가 개발한[11] 회복탄력성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 RQT)를 신우열 등(2009)이 우리나라 성향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KRQ-53을 사용하였다[16]. 총 53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으며[1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행감, 만족감, 기쁨 등의 자신의 내면적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이다[18].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중년여성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1983)가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17]를 정현숙(2004)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한 RKMSS(Revised-Kansas Mat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18]. 총 4개 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현숙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97이었으며[18], 본 연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3.4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며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평가나 가치관을 중시하게 된다[19].

자존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자영 등(2009)이 타당도 검증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0]. 총 9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자영의 연구(2009)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2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3.5 노화 불안

노화 불안은 자신의 개별적인 노화화 관련된 과정으로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5].

노화불안 측정도구는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AAS)[5]을 김숙남 등(2008)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22].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7개의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16점에서 80점까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김숙남 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KW-2019-A-10)을 받은 후 2019년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각 지역의 기반을 둔 연구보조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교회, 아파트 반사회, 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관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전국 8개 도시의 중년여성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권리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동의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성을 보장한 비밀유지,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결혼만족도, 회복탄력성, 자존감과 노화불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비모수검증을 하였다.
4.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결혼만족도, 회복탄력성, 자존감, 노화불안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nter 방식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1.80 ± 0.29 세로 46세~50세가 86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51세~55세가 84명(32.8%), 56~60세 60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31명(90.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130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집단은 142명(55.5%)이었고, 직업은 주부가 97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이 4명(1.6%)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 수는 평균 1.87 ± 0.72 명으로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156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평균 25.15 ± 0.46 년으로 21~30년이 139명(54.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상자 중 146명(57.0%)이 폐경이 된 상태였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만족'이 112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은 6명(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로 결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경우는 146명

(57.0%)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은 주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87(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운동 80명(31.3%), 사회적 활동 62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1번이 89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77명(30.1%), 한 달

에 한 번은 68명(26.5%), 1년에 몇 번은 22명(8.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질병이 없는 상태는 180명(70.3%)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56)

Variables	Category	n(%)	Mean ± SD
Age	40-45	26(10.2)	51.80 ± 0.29
	46-50	86(33.6)	
	51-55	84(32.8)	
	56-60	60(23.4)	
Marital status	Married	231(90.2)	
	Unmarried(Divorce or Others)	25(9.8)	
Education	Illiteracy	4(1.6)	
	Primary school	8(3.1)	
	Middle school	28(10.9)	
	High school	130(50.8)	
	College	83(32.4)	
Religion	No	114(44.5)	
	Yes	142(55.5)	
Occupation	Office worker	43(16.8)	
	Profession	58(22.7)	
	Technician	27(10.5)	
	Businessman	15(5.9)	
	Commerce	12(4.7)	
	Agriculture	4(1.6)	
	Housewife	97(37.9)	
Number of Children	1	57(22.3)	1.87 ± 0.05
	2	156(60.9)	
	3	32(12.5)	
	4	2(1.8)	
	5	1(0.4)	
	None	8(3.1)	
Period of Marriage	1-10	7(2.7)	25.15 ± 0.46
	11~20	60(23.4)	
	21~30	139(54.3)	
	31~40	48(18.8)	
	≥ 41	2(0.8)	
Menopause	Yes	146(57.0)	
	No	110(43.0)	
Satisfaction of Marital Life	Very satisfied	26(10.2)	
	Satisfied	112(43.7)	
	Average	89(34.8)	
	Dissatisfied	23(9.0)	
	Very dissatisfied	6(2.3)	
Exercise	Yes	146(57.0)	
	No	110(43.0)	
Leisure	Housework	87(34.0)	
	Social activity	62(24.2)	
	Exercise	80(31.3)	
	Others	27(10.5)	
Number of Times Meeting Friends	Several per week	77(30.1)	
	1 per week	89(34.8)	
	1 per month	68(26.5)	
	Several per year	22(8.6)	
Present Illness	No	180(70.3)	
	Yes	76(29.7)	

Table 2. Degree of Perceived Health,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Self-Esteem, Aging Anxiety (N=256)

Categories	Item	Range	Total sum Mean±SD	Range	Mean±SD
Perceived Health	3	6-15	9.73±1.87	2-5	3.24±0.04
Resilience	53	130-246	181.15±1.21	1-5	3.42±0.02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4	4-20	13.27±3.54	1-5	3.32±0.06
Self-Esteem	9	18-36	26.46±0.21	2-4	2.94±0.02
Aging Anxiety	16	20-61	45.33±0.47	1-5	2.83±0.03

3.2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과 노화불안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평점 9.73±1.87점 이었고, 회복탄력성은 평균평점 181.15±1.21점, 결혼만족도는 평균평점 13.27±3.54점, 자존감은 평균평점 26.46±0.21점, 노화불안은 평균평점 45.33±0.4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은 직업($F=2.88, p=0.10$)과 결혼생활 만족도($F=6.8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2.83±.47점)가 전문직(2.65±.61점)보다 노화불안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여성(2.49±.66점)이 결혼생활을 그저 그렇게 느끼거나(2.96±.32점) 비교적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여성(2.98±.46점)보다 노화불안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과 노화불안과의 상관관계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은 지각된 건강상태($r=-.300, p<.001$), 회복탄력성($r=-.537, p<.001$), 결혼만족도($r=-.316, p<.001$), 자존감($r=-.424,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의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 및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를 진입(Enter) 방식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직업(주부 기준)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노화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인 총 5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하기 전에 명목변수인 직업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를 통해 잔차의 독립성을 분석한 결과 1.884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독립성이 유지되었고,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는 -2.82~2.77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cook's distance의 최대값이 0.1이므로 이상점은 없었고, 정규선에 가깝게 분포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0~.82로 .0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22~1.67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으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F=14.34, p<.001$).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은 회복탄력성($\beta=-.37, p<.001$)과 직업($\beta=-.17, p=0.003$), 자존감($\beta=-.16, p=0.014$)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9%였다. 중년여성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Differences in aging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4)

Variables	Category	n(%)	Aging Anxiety		
			M±SD	F or t	p
Age	40-45	26(10.2)	2.76± .43	1.10	.349
	46-50	86(33.6)	2.90± .43		
	51-55	84(32.8)	2.82± .50		
	56-60	60(23.4)	2.78± .48		
Marital status	Married	231(90.2)	2.84± .46	0.32	.751
	Unmarried(Divorce or Others)	25(9.8)	2.81± .53		
Education	Illiteracy	4(1.6)	3.34± .29	1.77	.119
	Primary school	8(3.1)	2.86± .47		
	Middle school	28(10.9)	2.91± .40		
	High school	130(50.8)	2.85± .43		
	College	83(32.4)	2.75± .53		
Graduate school	3(1.2)	2.96± .46			
Religion	No	114(44.5)	2.87± .50	1.10	.274
	Yes	142(55.5)	2.80± .44		
Occupation	Office worker	43(16.8)	2.89± .43	2.88	.010* a<b
	Profession ^a	58(22.7)	2.65± .61		
	Technician	27(10.5)	2.90± .46		
	Businessman	15(5.9)	2.71± .53		
	Commerce	12(4.7)	2.72± .34		
	Agriculture	4(1.6)	3.11± .40		
Housewife ^b	97(37.9)	2.83± .47			
Number of Children	1	57(22.3)	2.85± .52	1.45	.207
	2	156(60.9)	2.86± .40		
	3	32(12.5)	2.70± .63		
	4	2(1.8)	2.59± .22		
	5	1(0.4)	2.00± .00		
	None	8(3.1)	2.82± .57		
Period of Marriage	1-10	7(2.7)	2.82± .88	1.29	.275
	11~20	60(23.4)	2.80± .47		
	21~30	139(54.3)	2.88± .45		
	31~40	48(18.8)	2.77± .45		
	≥ 41	2(0.8)	2.28± .49		
Menopause	Yes	146(57.0)	2.83± .50	0.11	.913
	No	110(43.0)	2.84± .42		
Satisfaction of Marital Life	Very satisfied ^a	26(10.2)	2.49± .66	6.80	<.001* a<c,d
	Satisfied ^b	112(43.8)	2.79± .46		
	Average ^c	89(34.8)	2.96± .32		
	Dissatisfied ^d	23(9.0)	2.98± .46		
	Very dissatisfied ^e	6(2.3)	2.72± .63		
Exercise	Yes	146(57.0)	2.81± .51	-1.07	.285
	No	110(43.0)	2.87± .41		
Leisure	Housework	87(34.0)	2.92± .43	1.56	.200
	Social activity	62(24.2)	2.82± .42		
	Exercise	80(31.3)	2.78± .53		
	Others	27(10.5)	2.77± .46		
Number of Times Meeting Friends	Several per week	77(30.1)	2.72± .53	2.24	.065
	1 per week	89(34.8)	2.92± .41		
	1 per month	68(26.6)	2.85± .43		
	Several per year	22(8.6)	2.83± .51		
Present Illness	No	180(70.3)	2.84± .46	0.59	.557
	Yes	76(29.7)	2.81± .49		

Table 4. Correlation of Perceived Health,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Self-Esteem and Aging Anxiety (N=264)

Categories	Perceived Health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Self-Esteem	Aging Anxiety
Perceived Health	1.00				
Resilience	.345** ($<.001$)	1.00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323** ($<.001$)	.396** ($<.001$)	1.00		
Self-Esteem	-.294** ($<.001$)	-.569** ($<.001$)	-.305** ($<.001$)	1.00	
Aging Anxiety	-.300* ($<.001$)	-.537** ($<.001$)	-.316** ($<.001$)	-.424** ($<.001$)	1.00

** $<.001$ * $<.05$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aging anxiety (N=256)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Invariable number	4.49	.40		11.36	$<.001$		
Perceived Health	-.07	.04	-.09	-1.58	.115	.82	1.22
Resilience	-.47	.08	-.37	-5.65	$<.001^*$.60	1.67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05	.03	-.09	-1.53	.127	.80	1.26
Self-Esteem	-.19	.08	-.16	-2.48	.014 [^]	.65	1.54
Occupation (Ref:housewife=0)	-.19	.06	-.17	-3.05	.003 [^]	.80	1.26

Adj. R² = .369, F=14.34, p $<.001$

Ref=Reference

4. 논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여성이 긍정적으로 노화과정을 수용하고 중년기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은 5점 척도에 평균 평점 2.83점으로 중정도로 측정되었다. Lasher 등(1993)이 개발한 Aging Anxiety Scale(ASS)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Park(2018)의 연구에서는 2.71점[7], Jun 등(2019)의 연구와 Jung 등(2016)의 연구는 2.80점[1, 3]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Lee 등(2017)의 연구와 Seo 등(2019)의 연구는 3.00점[6, 8]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Suh 등[10]의 연구에서 이미 폐경 및 노화를 경험한 중년 후기 여성들의 노화불안 정도가 중년 전기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Park[7]과 Jung 등[3]이 40대가 50대보다 노화불안의 정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황적 특성을 파악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배우자 동거여부, 직업 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학력, 월평균 소득, 월경 유무, 현재 질병 유무, 운동 유무, 친구의 수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1, 3, 7-9],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정도를 살펴본 결과, 주부로서 직업이 없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업 유무에 따른 노화불안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3, 7, 8, 9], 본 연구에서 직업군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직업군 중 특히, 전문직군과 주부군 간에 노화불안의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여성이 주부인 여성보다 노화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전문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기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주부인 여성은 자식들의 출가와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자신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빈둥지 증후군과 무가치감

으로 인한 노화불안이 더 높으리라 생각된다[28]. 현대사회에서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나 취미 및 문화생활, 봉사활동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중년여성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결혼생활 만족도가 노화불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자의 54%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높은 대상자가 노화불안이 낮았다. 이 연구결과는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으면 노화불안이 낮다는 Jung 등(2016)과 Park(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3, 7].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여성에게 결혼생활의 만족이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화불안과 지각된 건강상태,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및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r=-.300, p<.001$), 회복탄력성($r=-.537, p<.001$), 결혼만족도($r=-.316, p<.001$), 자존감($r=-.424, p<.001$)은 노화불안과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중년여성들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평균점 3.2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g 등의 연구에서의 3.41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Lee 등의 연구와 Choi 등(2009)의 연구결과인 평균 3.2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6], 이는 현재 질병이 없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의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화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였다[3, 6]. 노후생활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므로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인 노화와 더불어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노화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은 낮아지게 되므로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 행위를 통해 지각된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년여성의 회복탄력성은 3.39점으로 Jung 등(2019)의 연구 3.37점, Yang(2015)의 연구 3.38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고[23, 24], 다른 도구를 사용한 Min(2017)의 연구에서는 2.43점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25].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

난이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중년여성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보고하였다[12, 23-25]. 노년기를 앞두고 노화에 대한 불안과 신체적, 심리적 격동기인 갱년기를 거치는 중년기의 여성들은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므로 이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회복탄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는 회복탄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3.32점으로 중정도 이상이었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았다. 중년기 여성이 겪는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야기하고 늘어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3, 7].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부부만이 남아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 이후에 부부관계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는 중년기 이후의 행복한 미래를 영위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중년여성의 우울이나 위기감을 감소시켜 노화불안도 감소하리라 사료된다[28].

중년여성의 자존감은 4점 척도에 평균평점 2.94점으로 중정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Yu(2012)의 연구에서는 2.82점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불안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3].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인식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을 나타내었는데[21],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자존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비교하기 힘들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아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beta=-.37, p<.001$)과 직업($\beta=-.17, p=.003$), 자존감

($\beta = -.16, p = .0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9%였다. 중년여성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해 파악하여 이 변수들이 노화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고, 회복탄력성이 중년의 위기감에 노화불안을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Lee 등(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12],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중년여성의 낮은 자존감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Yu(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특성 중 직업의 유무는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직군에 따라 노화불안의 정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나 사회활동이 필요하며,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중년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회복탄력성과 자존감의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에는 여성들의 직업이나 사회활동 참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8개 도시에서 편의 표집한 40~60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기 이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화불안은 지각된 건강상태 및 회복탄력성, 결혼만족도, 자존감과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노화불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회복탄력성과 직업, 자존감으로 설명력은 36.9%였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직업이나 적절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며, 불확실한 미래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노화불안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중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H. S. Jun, H. J. Ju, "The Effects of Health Status and Retirement Preparation on Aging Anxiety in Middle-Aged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1, pp.315-325, 2019,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315>
- [2] Samsung Life Retirement Research Institute. Retirement Readiness Index 2018 Report. Seoul. Retrieved July 25. 2019. from, 2018. <http://www.samsunglife.com/retirement/report/report/all/list.html>
- [3] Y. O. Jung, H. S. Oh,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n Aging anxiety of the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1, pp.30-41, 2016. DOI : <https://doi.org/10.4069/kiwhn.2017.23.3.181>
- [4] M. S. Lee, Y. A. Ju,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counselling program for middle-aged women's life quality improvem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2, No.3, pp.87-116, 2016.
- [5] K. P. Lasher,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DOI: <https://dx.doi.org/10.2190/1u69-9au2-v6lh-9y11>
- [6] E. J. Lee, M. H. Sung, "Impacts of Health Perception, Aging Anxiety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Late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3, No.3, pp.181-190, 2017. DOI : <https://doi.org/10.4069/kiwhn.2017.23.3.181>
- [7] J. H. Par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n Aging Anxiety of the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569-577, 2018.

-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569>
- [8] J. H. Seo, G. N. Yoo,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Aging Anxiety among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1, pp.339-347, 2019.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339>
- [9] I. H. Cho, Y. J.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Death anxiety on Aging Anxiety of Middle ag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2, pp.179-188, 2016.
DOI :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2.31>.
- [10] S. R. Suh, H. J. Choi, "Aging anxiety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aged adul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5, No.4, pp.464-472, 2013.
- [11] K. Reivich,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Broadway Books*, 2002.
- [12] W. K. Lee, H. S. Park,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Aging anxiety on the Mid-life Crisis: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Ewha Journal Social Science*, Vol.35, No.2, pp.99-122, 2019.
- [13] S. S. Lee, "A Study on Self-Esteem and Physic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9, No.2, pp.547~562, 2009.
- [14] D. L. Speak, M. E. Cowart, K. Pellet, "Health perceptions and lifestyles of the elderl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Vol12, pp.93-100, 1989.
- [15] S. H. Kim,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bereaved old peopl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at the Chung-Ang University*, 2010.
- [16] W. Y. Shin, M. G. Kim,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2009.
- [17] W. Schumm, C. Nicols, K. Schectman, C. Grigsby, "Characteristics of reps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Vol.53, pp.567-572, 1983.
- [18] H. S. Chung,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2, No.1, pp.91-101, 2004.
- [19] A. Makikangas, U. Kinnunen, "Psychosocial work stressors and well-being: Self-esteem and optimism as moderate in a one-year longitudin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5, No.3, pp.537-557, 2003.
- [20] J. Y. Lee, S. K. Nam, M. K. Lee, J. H. Lee, S. M.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 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1, pp.173-189, 2009.
- [21] S. O. Lee, "The Influence of Middle Aged Women's Caring Appearance, Acceptance of Aging, Positive-Negative Affect, Physical Health and Self-Esteem on the Satisfaction of Life", *Depar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yungnam University*, 2014.
- [22] S. N. Kim, S. O. Choi, K. I. Shin, J. H. Lee, "Validation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7, No.3, pp.292-301, 2008.
- [23] H. Y. Jung, K. M. Sung, "Effects of an Aging Managemen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on Resilience and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5, No.4, pp.392-408, 2019.
DOI : <https://doi.org/10.4069/kiwhn.2019.25.4.392>
- [24] K. M. Yang, "The Effect of Depression, Life Stress and Resilience on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mic Society Home Care Nursing*, Vol.22, No.2, pp.300-309, 2015.
- [25] E. S. Mi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1, No.4, pp.199-207, 2017.
DOI : <http://dx.doi.org/10.21184/jkeia.2017.06.11.4.199>
- [26] H. J. Lee, M. A. Yu, "Development of an Aging Anxiety Scale for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9, No.1, pp.14-25, 2019.
DOI : <https://doi.org/10.4040/jkan.2019.49.1.14>
- [27] J. Y. Lee, S. K. Nam, B. Y. Choi, J. H. Lee, Y. M. Park, S. M. LEE, "Errors in Item Translation of Psychological Assessment by Cultural discrepancy: Revising 8th Item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3, pp.1345-1358, 2009.
- [28] J. S. Kim,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Adults-Personal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Graduate school at Myongji University*, 2018.

김 현 영(Hyun-Yo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학, 성인간호학